

그래도, 타이거즈 캠프는 돌아간다

스프링캠프 선수단 호주 캔버라로 출국...3월 6일까지 훈련 주장 나성범 "선수들 동요하지 않고 준비한대로 최선 다할 것"

그래도 KIA 타이거즈의 캠프는 돌아간다. KIA 스프링캠프 선수단이 30일 호주 캔버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선수단은 2월 1일부터 21일까지 캔버라에서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새 시즌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이후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 3월 6일까지 KBO리그의 롯데, KT, 삼성 그리고 일본 야쿠르트 등과 6차례 연습경기를 갖고 육척가리기를 이어간다.

캠프 출발날은 새 시즌의 첫발을 내딛는 날만큼 선수들은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새출발에 대한 각오를 밝히곤 했다. 하지만 이번 출발은 조금 달랐다. 선수들은 이날 오전 챔피언스필드에 모여 구단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했다. 짐을 챙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 선수들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선수들이 캠프 출발을 위해 짐을 싣고 있던 순간, 김중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영장 실집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지난 28일 김중국 감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KIA는 이날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렸다. 29일에는 배임수재 혐의로 김중국 감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어 KIA가 김중국 감독과의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캠프를 코앞에 두고 사령탑이 공백상태가 되면서,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 속에 시작해야 할 캠프 분위기가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새로 '주장'을 맡은 나성범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우려의 시선 속에 캠프가 시작되지만 나성범은 "준비한 대로 하겠다"며 선수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나성범은 "시작부터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이 무겁지만 똑같이 준비할 것이다. 팬분들이 걱정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선수들이 동요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큰 성인들이 그런 것에 너무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것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해야 팬분들도 안심하실 것이다"고 말했다.

주장으로서는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나성범에게는 중요한 캠프이자 시즌이다. 나성범은 지난 시즌 종아리와 허벅지 부상으로 훈련 시간을 보냈었다.

나성범은 "아픈 곳은 없다. 우리팀 선수들하고 호흡을 맞춰가면서 팀플레이를 하다 보면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도 강하게 만들어왔는데, 지금 보다 더 연습 많이 해서 시즌 잘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캠프를 시작하지만 올 시즌에 대한 선수들의 기대감은 크다.

나성범과 함께 지난 시즌 큰 부상을 당했던 최형우, 박찬호, 김도영이 '이상 무'를 외치며 캠프에 참가한다. 지난 시즌 뜨거운 타선을 구축했던 이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시즌을 준비하면서 KIA 강점인



3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KIA 타이거즈 구단 프런트들이 호주 캔버라로 스프링캠프를 떠나는 선수단을 마중하고 있다.

'화력'에 눈길이 쏠린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순위 싸움 동력을 잃었던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손가락 인대 부상에 이어 손목 골절 부상을 당했던 박찬호는 "아직 100%는 아니다. 방향이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상태다. 안 아프고 캠프를 치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건강이 우선이다"고 건강한 시즌을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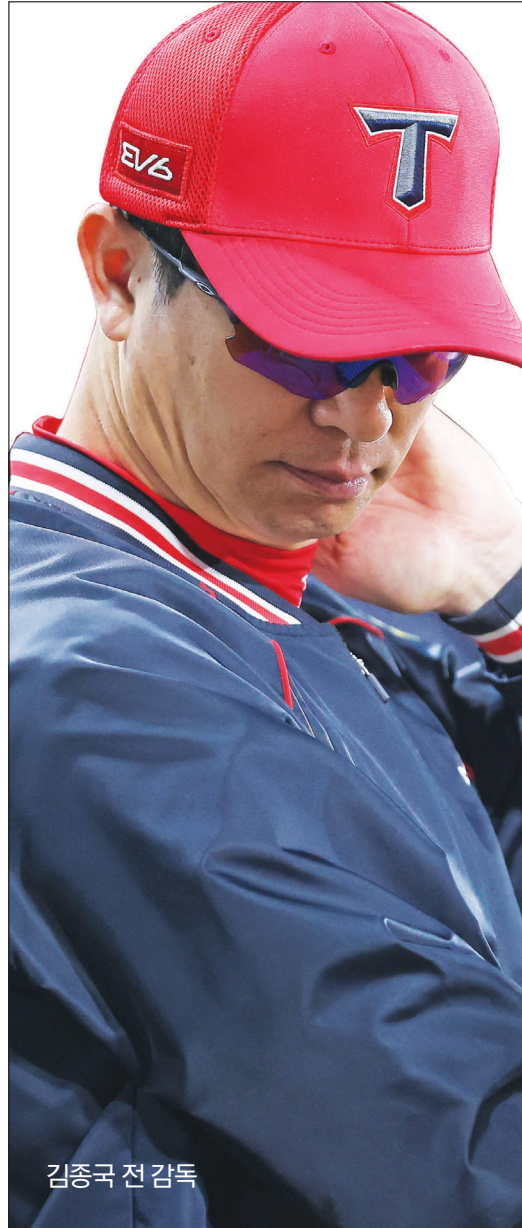
익숙한 곳에서 경쟁에 한발 앞서가겠다고 다짐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겨울 호주리그에서 캔버라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투수 유승철, 김기훈과 내야수 박민은 짧은 휴식 뒤 다시 호주로 떠났다.

이들은 비시즌에도 실전을 하면서 몸을 만들고, 감각을 익힌 만큼 캠프에서 그 페이스를 이어가

다는 각오다

정해영·이외리·황동하·윤영철·곽도규 등 '미국 유학'을 다녀온 영건들도 기대감으로 캠프를 시작한다. 드라이브라인에서 과학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장·단점을 확인한 이들은 캔버라 캠프를 통해 성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독이 든 성배' KIA 감독 잔혹사 언제까지...

'빅리그 올스타' 윌리엄스·국보급 투수 선동열 감독 등 'V11' 일군 전국구 구단, 임기 못 채우고 퇴장 잇따라

'호랑이 군단'이 감독 잔혹사를 끊을 수 있을까? 투-타의 밸런스로 핑크빛 2024시즌을 기대하고 있던 KIA 타이거즈에 최악의 악재가 닥쳤다. 스프링캠프 출발을 앞두고 있던 김중국 감독이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전 감독이 됐다.

희망찬 새 시즌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KIA는 '사령탑 찾기'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았다.

'안정감'이 KIA에 주어진 키워드다. KIA 감독은 '독이 든 성배'다.

V11에 빛나는 역사와 전국구 구단이라는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는 매력적인 팀. 하지만 KIA 지휘봉을 들었던 이들이 연달아 씩씩한 퇴장을 했다.

김중국 감독이 수석코치로 보좌했던 맷 윌리엄스 감독은 계약 1년을 남겨두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타이거즈 역사상 첫 외국인 감독이자 '빅리그 올스타'에 빛나는 이력으로 눈길을 끌었던 윌리엄스 감독이지만 KBO리그에서 빛나는 순간을 맞이 못했다.

구단의 지원 사격도 부족했고, 내부 갈등 속 조계현 단장과 사장까지 동시에 자리에 물러났다.

윌리엄스 감독에 앞서 김기태 감독도 약속된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김기태 감독은 '형님 리더십'으로 2017시즌 우승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선수로서는 함께 하지 못했던 고향팀에서 지도자로 기대했던 우승 순간도 맞았고, 재계약에도 성공했지만 김 감독은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남겨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감독의 전임인 선동열 감독의 퇴장도 씩씩했다. 많은 기대감 속에 탄탄한 전력의 '선동열호'가 출범했지만, 5-8-8이라는 초라한 성적표가 남았다. 3년의 실패에도 선 감독은 재계약에 성공했지만 '리빙딩'을 이야기하면서 팬들의 거센 반대 목소리에 직면했다. 구단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결국 선 감독은 자진사퇴 했다.

타이거즈의 상징이었던 김용우 감독에 이어 사령탑을 맡았던 김성환, 유남호, 서정환 감독도 약속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리더십과 성적 모두 만족할 만한 인물을 찾아, 이제는 감독 잔혹사를 끊어야 한다.

김중국 감독의 직무 정지, 계약 해지에 이어 스프링캠프

선수단 출발까지 KIA의 지난 3일이 긴박하게 돌아갔다.

KIA는 26일 김중국 감독과의 계약 해지 사실을 알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임 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일 톱 없이 KIA는 후보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다른 구단들이 코칭스태프 등 선수단을 새로 정비하고 캠프로 떠난 만큼 일단 아인들이 시선이 간다.

개막을 불과 50일가량 앞두고 팀을 맡아야 하는 만큼 KIA를 잘 아는 인물도 우선 후보군이다. 이런저런 악재에도 부족했던 성적도 내야 하는 만큼 '가을잔치 경력'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중하게 KIA가 후보군을 골라내고 있는 사이, '성배'를 노리는 이들의 경쟁은 이미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감독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KIA는 지도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팀이다. 특히 올 시즌 KIA는 리그가 주목하는 '다크호스'다.

젊고 탄탄한 마운드와 경험을 중심으로 한 뜨거운 타선까지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전력은 좋다. 지난해 어렵게 포스트 시즌 탈락을 경험한 선수들도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준비된 선수들을 이끌고 높은 곳에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면서 '타이거즈 사령탑'을 향한 시선은 뜨겁다.

KIA가 리더십을 갖춘 새 감독을 낙점해 '감독 리스크'를 지우고 안정감 있는 팀으로 갈 수 있기를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정후 바람이 분다...ML 첫 해 '시동'



내일 출국...전체 선수단 훈련 보름 앞서 입소 현지 적응키로

'바람의 손자'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사진)가 2월 1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첫해 도전의 시동을 건다.

이정후의 매니지먼트회사인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이정후가 2월 1일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다고 30일 알렸다.

이정후는 곧바로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샌프란시스코 스프링캠프 훈련 시설로 이동해 시차 등 현지 적응 훈련에 들어간다고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소개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투·포수 훈련일은 2월 16일, 야수 합류로 전체 선수단이 훈련하는 첫 날은 2월 21일이다.

보통 소집일 전에 선수들이 한달씩 훈련 시설에 일찍 모이는 관례에 비춰볼 때 보름 이상 훈련 시설에 먼저 입소하는 새내기 이정후는 새 동료들과 안면을 트고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 공식 훈련에 임

할 예정이다.

원소속구단인 키움 히어로즈의 승낙을 받고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으로 MLB 진출에 도전한 이정후는 지난해 12월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1300만달러(약 1503억원)라는 엄청난 액수에 계약 도장을 찍고 꿈을 이뤘다.

포스팅시스템을 거친 한국 선수로는 역대 최고 액수 신기록도 세웠다. 아울러 4년을 뒀던 예외는 아웃(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자유계약선수로 계약할 수 있는 권리) 조건도 계약에 관철했다.

이정후는 샌프란시스코의 올 시즌 1번 타자 불바이 중견수로 평가받는 등 아직 빅리그에서 한 경기도 뛰지 않고도 팀의 얼굴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정후는 2월 25일 오전 5시(한국시간)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한 시범경기부터 메이저리거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시범경기 3월 9일 시작

KIA-NC 개막전 등 19일까지 팀당 10경기씩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3월 9일 시작된다.

KBO가 30일 2024 시범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3월 9일 올 시즌을 미리 엿보는 '시범무대'가 열리며 19일까지 팀당 10경기씩 소화한다.

MLB 서울 개막전에 앞서 연습경기를 소화하는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는 각각 8경기를 치르면서 총 48경기가 진행된다.

KIA 타이거즈는 창원에서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시범경기 개막전을 치른다.

이외에 수원(LG-KT), 대전(삼성-한화), 사직(SSG-롯데), 마산(키움-두산) 구장에서 시범경기가 막을 오른다.

NC와 첫 대결을 갖는 KIA는 창원 2연전 뒤 대전으로 가 11·12일 한화 이글스를 상대한다.

13일 휴식일을 보낸 KIA는 14·15일에는 잠실에서 두산 베어스와 만난다.

16일부터는 홈 4연전이 전개된다. KIA는 16·17일 KT위즈와 대결을 가진 뒤 18·19일 삼성전을 통해 시범경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시범경기에는 소속선수 및 육성선수가 모두 출장할 수 있다. 출장 선수 인원에도 제한이 없다.

모든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되고, 연장전과 더블헤더는 열리지 않는다. 취소된 경기는 재편성되지 않는다.

비디오 판독은 팀당 2회씩 신청할 수 있다. 2회 연속 판정이 번복되면 비디오 판독 기회가 1회 추가된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